

4/28/19

설교 제목: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2 장 23 절-28 절, 마태복음 12 장 1 절-8 절

(막 2: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막 2: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절관주** 신 23:25

(막 2: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막 2: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막 2: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절관주** 골 2:16

(막 2: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절관주** 마 12:8

(마 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절관주** 신 23:25, 눅 6:1

(마 12: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 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절관주** 삼상 21:6, 삼상 21:7

(마 12: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절관주** 출 29:32

(마 12: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절관주** 민 28:9

(마 1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 12: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다 앞서 가면서 밀밭을 손으로 헤쳐 길을 만들면서 갔는데 도중에 시장기를 느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겨를 벗겨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트집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겨를 벗겨내 먹은 단순한 행위를 안식일의 규례를 깨는 불경건한 노동 행위로 보았고 또한 제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스승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항의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없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23: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기초하여 만든 금령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을 구분해 놓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금령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곡식을 추수해서도 안되고 추수한 곡식을 탈곡해서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겨를 벗겨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또 이삭을 손으로 비벼 겨를 깬 것은 탈곡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식법(ceremonial law)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한 사건을 거론하십니다.

(막 2: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막 2: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트집에 예수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일화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 근처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늪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부하들에게 먹일 떡 다섯 덩이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지금 자기 수중에 진설병만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성막 성소에 올렸다가 물려낸 진설병을 내어 주어 다윗과 부하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삼상 21:1) 다윗이 늪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삼상 21: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삼상 21: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삼상 21: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삼상 21: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가 하매

(삼상 21: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했는데 사무엘상 기록에 의하면 아히멜렉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부친입니다.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라기 보다는 다윗이 놉에 갔을 때 아히멜렉 부자가 함께 있어 다윗을 도와 주었고 그후 아버지 아히멜렉이 사울 손에 죽고 아들 아비아달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진설병은 성막 성소 안에 금으로 입힌 상 위에 진설되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열 두 덩이의 떡을 진열하고 이미 진설했다 물린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내 주었습니다. 성전의 의식법을 어기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떤 근거로 그같이 했을까요?

첫째,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사명이 성전의 의식법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부하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성전의 의식법 보다 더 높은 계명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레 19:18 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같은 결정은 성전 의식법 보다 더 상위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정신을 따른 것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필 이 사건을 들추어 내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도 다윗 때의 사건과 같이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교 의식법보다 더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종교 의식법이나 형식적 종교 행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그리고 율법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 12: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 1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잡고 각을 뜹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여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법의 안식일 규정에서 제외되어 죄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논리를 펼치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였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구속했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히 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 9: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더 이상 안식일의 의식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속박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불의를 지적하셨습니다.

(막 2: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 12: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날 만큼은 사람들이 노동으로 부터 해방되어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을 받고 살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문자대로 지키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한 바리새인들의 불의와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초월적인 권위를 선포하심으로 논쟁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막 2: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심으로써 편협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안식일 규정을 온전하게 주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율법이나 의식법을 잣대로 삼아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했느냐?

매주 주일 성수는 했느냐?

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한 적이 있지 않느냐?

너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지 않느냐?

너 음욕을 품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죄들을 지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정죄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씻음을 받고 하늘 나라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 의식법이나 관습 율법 등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